



“내 이름 전 유소년대회 만드는게 꿈”

LA에인절스 입단 진흥고 ‘괴물투수’ 정영일 선수

스포츠 포커스

9월 에인절스 교육리그 참가

정영일 이후 일정은 내년 2월 정식 입단

정영일은 우선 8월 8일 막을 올리는 봉황대기대회 참가를 끝으로 올해 전국 대회 일정을 마친다. 이후 오는 9월부터 1개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의 교육리그에 참가한다. 구단 관계자 및 선수들의 얼굴을 익히고 영어권의 문화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미국무대 적응 훈련을 갖는다.

트 1라운드에서 에인절스에 지명된 포수 최현(18)과도 만날 예정이다. 계약금 135만달러에 계약한 최현은 지난달 17일 탬퍼로 이동, 신인 드래프트 1. 2년차 선수들이 뛰는 리그인 ‘루키볼’에 참가하고 있고 장래 둘 다 빅리거로 승격된다면 사상 첫 한국인 배터리파 탄생한다.

다만 정영일은 취업 비자를 받는 내년 시즌 이전에는 ‘루키리그’에서 뛰지 못한다. 정영일은 10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영어와 회화 등 메이저리그 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실력을 다진 뒤 내년 2월 LA에인절스로 정식 입단, 마이너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영일은 이번 교육기간 동안 한인 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정영일은 누구?

- 생년월일=1988년 11월 16일
출신교=광주 화정초-충장중-진흥고
신체조건=키 188cm, 몸무게 96kg
투/타=우투-우타
소속구단=2007년 LA에인절스 입단 예정

- 계약금=110만달러
가족관계=아버지 정중호(48)씨와 어머니 나옥림(42)씨 사이의 2남중 장남
주요성적
-2000년 제 1회 박찬호 어린이 야구 대회 우승
-2005년 제 12회 무등기 준우승
-2005년 제 37회 화랑대기 준우승
-2006년 제 61회 청룡기 준우승
-2006년 제 13회 무등기 우승



지난 9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마스터스 관광호텔에서 열린 정영일의 LA 에인절스 입단 조인식에서 정영일의 어머니 나옥림씨(42)가 구단측에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1994년 이른 봄, 광주 화정초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을 기웃거리는 코를리개 유치원생이 있었다. 지난 81년부터 화정초 야구부를 맡고 있는 박태영 감독은 이 꼬마에게 다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물었다. 풀망망한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던 이 꼬마는 이듬해 화정초에 입학했고 곧바로 야구부로 달려왔다. 하지만 박 감독은 “너무 어려서 안되니 3학년때 다시오라”며 교실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꼬마 소년은 한 달이 넘도록 수업안 끝나면 야구부 주위를 맴돌았다. 박 감독은 결국 이 소년의 고사리 손에 야구공을 하나 쥐어줬고 운동장 한 켠에서 야구놀이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2년 후 이 소년은 당당히 초등학교 야구부의 주전 자리를 꿰찼다.

한국인 선수로는 31번째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한 정영일(18·진흥고)의 야구 입문이다. 이처럼 정영일은 다른 스타 선수들처럼 감독의 눈에 우연히 띄웠거나 부모의 손을 잡고 야구에 입문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냥 야구가 좋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찾아왔다.

박 감독은 “정영일이는 유난히 야구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 하루는 연습경기 도중 야구공에 맞아 왼눈이 부러졌는데도 울지 않고 야구를 하더라”면서 “25년 지도자 생활동안 영일이 같이 근성있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영일은 초등학교 6학년때인 2000년 제 1회 박찬호 어린이 야구대회에 출전, 원년 우승의 주역이 되면서 야구 꿈나무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장중 진학 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168kg, 50kg)에 중학교 2학때까지 후보 선수로 벤치만 지켰다.

다행히 중학교 3학년때 새로 부임한 차영화 감독이 정영일의 강한 어깨를 알아봤고 ‘특급 투수’의 자질을 키워냈다. 이후 진흥고로 진학한 정영일은 입학과 동시에 늦깎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고교 1학년때 열린 제 11회 무등기 16강전서 화순고를 상대로 40이닝동안 최고 구속 142km를 넘나드는 직구를 뿌려대며 새로운 스타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8개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은 스트라이크존 근처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영일의 볼끝에 주목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정영일은 지난 4월 대통령배 경기고와 1회전에서 150km대의 직구를 앞세워 13.20이닝 동안 국내 고교 야구 최다인 23개의 삼진을 뿌리며 무려 8인기 기록도 갈아 치웠다. 이날 경기에서 무려 242개의 공을 던져 ‘투수 흑사’는 논쟁도 불리일었다.

이같은 ‘명품성’을 눈여겨본 KIA는 지난 6월 2007년도

신인 1차 지명선수로 정영일을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입단 계약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명문구단인 LA 에인절스로 부터 러브콜이 들어왔다.

정영일은 망설임 없이 국내 구단 입단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초등학교 6학년때 박찬호 야구대회서 박찬호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부터 가슴에 품어왔던 메이저리거의 꿈 때문이었다.

미국 진출 이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박찬호 선배를 뛰어 넘겠다”고 답한 것도 이같은 야망이 감춰져 있다.

코흘리게 유치원생때부터

초등부 야구 훈련장 기웃

이젠 당당한 예비 빅리거

“찬호 선배 뛰어 넘겠다”

정영일은 박찬호 선수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야구대회를 고향 광주에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참 속이 깊은 말이다.

실제 광주지역은 선동열, 김병현, 서재용, 최희섭 등 수많은 야구 스타들이 배출했지만 이들의 이름을 단 꿈나무 야구대회는 단 한 경기도 없는 게 이 지역의 현실이다.

정영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야구대회를 마련한 박찬호 선수의 매력이 꼭 배웠고 이후 메이저리거의 꿈을 키워왔다”면서 “박찬호 야구대회가 없었다면 현재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은 “자신의 이름을 단 유소년 야구대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메이저리그에서 꼭 성공하겠다”며 당당히 메이저리그 입성을 자신했다.

꿈과 의지를 앞세운 18세 청년 정영일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져 ‘제 1회 정영일기 유소년 야구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같은 ‘명품성’을 눈여겨본 KIA는 지난 6월 2007년도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흥고의 정영일이 지난달 2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150km대를 오가는 빠른볼을 앞세워 구미공고의 타선을 집재우고 있다.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with various business listings.

Large grid of advertisements for various businesses and services across the region.